

2 뉴스

알립니다

1699호 6면 세화원 기사에 대한 기숙사 측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1699호 6면 세화원 기사에 대해 기숙사 측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첫째, 종합정밀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8개 미개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취재를 시작한 시점(1월)에서는 종합정밀 점검 사항 8개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맞다. 하지만 취재 당시에도 개선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에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우선 에프터 서비스를 받은 후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 대응 방식이다. 그러나 업체의 에프터 서비스가 늦게 이뤄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가 아니라 교체를 통해 해결했다. 결과적으로 2월 말 기준으로는 기사에서 거론된 미개선 8건까지 모두 개선 완료된 상태였다.”

둘째, 행복기숙사 경보음 오작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화재 경보 방식에는 우선경보 방식과 전층경보 방식이 있고, 방식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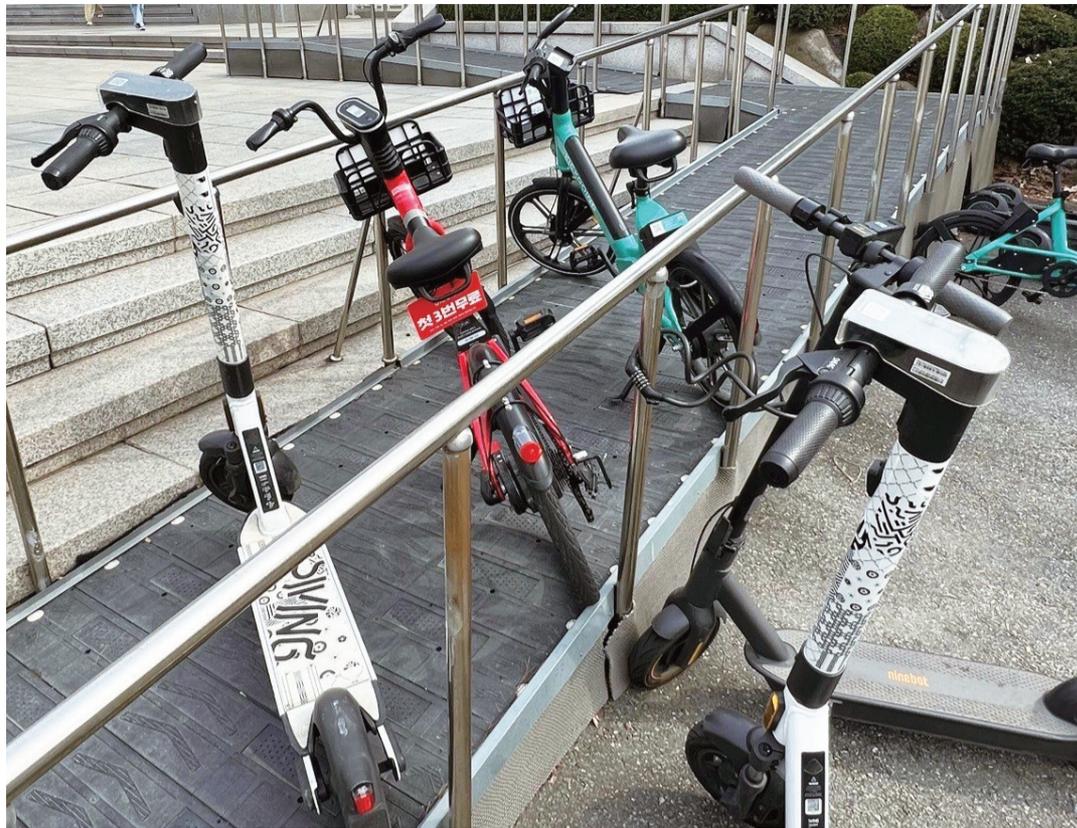
라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 다르다. 2022년 12월 2일 행복기숙사 경보음의 경우, 규정대로 우선 경보 방식으로 대처한 상황이다. 8층 경보음이 실제로는 화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헤드 이상으로 인해 물이 쏟아진 것이기에 나머지 모든 층에 대해서는 전층 경보 방식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셋째, 소방시설 오작동 15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작동 횟수는 15회가 맞으나,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짧은 시간에 경보음이 울렸던 것도 합산된 것이다. 그리고 해당 사항의 절반 이상이 건물 내 흡연, 커피포트 등으로 취사해 연기가 발생하는 등 규정 위반 행위에 따라 작동했다. 몇 차례 반복된 행복기숙사 쓰레기 분리수거장 천장 감지기 경보 건은 원인을 찾아 개선했다. 2월 말에 경보가 울린 장소의 감지기를 연기감지 방식에서 열감지 방식으로 교체했고, 현재까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경보음이 없었다.”

1701호 3면 사이비 종교 기사 사진과 관련한 사과문

1701호 3면 사이비 기사에 “교내에서 사이비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사진에 찍힌 분은 성경읽기선교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전동킥보드가 휠체어 경사로를 가로막고 있다.

(사진=김경태 기자)

휠체어 경사로에 장애물

김경태 기자 dragonmoon2021@khu.ac.kr

【국제】 국제캠퍼스 정문 경사로에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이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문에 설치된 경사로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정문을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이다. 하지만 개강 이후 정문 경사로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으로 늘 가로막혀 있다. 휠체어 이용자가 우리학

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문 경사로에 있는 장애물을 직접 치워야 했다. 실제로 캠퍼스 내 곳곳이 절정이었던 지난 1일에는 외부인이 경사로에 놓여있던 전동 킥보드를 한쪽으로 치우고 길을 오가기도 했다.

정문 경사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두는 이들은 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정문 경사로에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 정문 경비실 김성우 실장은 “헬멧을 쓰지 않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캠퍼스에 들어가지 못하자 정문 경사로에 전동 킥보드를 주차한다”고 밝혔다.

정문 경사로 옆에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를 위한 주차구역이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주차구역을 벗

어난 경사로에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를 주차하고 있는 것이다. 윤희재(의류디자인학 2021) 씨 역시 “정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경사로의 장애물을 보았다”며 “학생들이 경사로에 놓고 가는 것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총무관리처 총무팀은 “해당 민원을 받았고, 정문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분께서 보는 대로 바로 치우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전화로 오거나 실제로 그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 올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고, 이미 지금도 즉각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추가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총학생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1. 진행 절차



2. 실습 기간 : 2023.06.22.(목) ~ 2023.08.31.(목)

※ 실습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학생 참여 기준

- 가.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
 - ※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 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 나.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 현장실습 참여 불가
- 다. 졸업유예자 참여불가
- 라.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가능(일-학습연계유학(D-2-7) 비자 소지자 등)
- 마.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 가능

4. 학교 지원 사항

- 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 및 사전교육 진행
- 나. 신규기관 현장점검 및 학생 대상 현장실습 운영 중간 점검
- 다. 학점 인정 :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실습일수 기준 3학점 단위 로 학점 부여

실습일수	학점	실습일수	학점
20일 이상~40일 미만	3	40일 이상~56일 미만	6

- 서류심사시 현장실습 진행전공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으로 예비 학점을 결정
- ※ 국제대학, 이공대학 화학과는 학과지침에 따라 단기현장실습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 서류심사시 예비인정(수강)된 학점 범위 내에서 실습 종료 후 학점인정
- 단기현장실습은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통산 21학점까지 인정)
- 성적은 P(Pass)/N(Non-Pass)으로 처리

5. 실습기관 지원사항

- 가.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참여학생 산재보험 가입 및 필요시설·물품 제공
- 다. 직무 관련 교육시간(10~25% 이하)을 제외하고 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6. 신청 방법 및 선발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심사	학과별 학생 선발
1차	2023.04.17.(월)~ 2023.04.28.(금)	2023.05.03.(수)~ 2023.05.09.(화)	2023.05.11.(목)~ 2023.05.19.(금)	2023.06.07.(수)~ 2023.06.08.(목)
2차	2023.05.04.(목)~ 2023.05.15.(월)	2023.05.19.(금)~ 2023.05.24.(수)	2023.05.26.(금)~ 2023.06.01.(목)	

7. 신청방법

-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실습기관 조회 후 신청
- 가. 전공 유관 현장실습 원칙에 따라 본인의 본전공/다전공 모집 중인 기관만 조회 가능
- 나. 각 차수별 학생 신청 기간에 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
- 다. 한 차수당 하나의 기관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라. 기관별 운영계획 및 모집요강을 면밀히 확인 후 지원

8. 문의처

E-MAIL intern@khu.ac.kr
 TEL 서울C 02-961-2352, 국제C 031-201-3925
 ※ 2023-여름학기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